

광주, LED/LD 패키징 센터 개소

광반도체기업 기술지원 위해 준공 ... 첨단부품소재산업 탄력 기대

광주시의 주요 전략산업의 하나인 첨단부품소재산업이 LED/LD 패키징 센터 개소로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첨단부품소재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한 LED/LD 패키징 센터가 최근 광주 북구 광주테크노파크에 완공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광(光)반도체기업에 대한 시험생산, 기술지원 등을 하게 될 LED/LD 패키징 센터는 국비와 민간자본 등 187억원이 투입돼 2년여 만에 준공됐다.

센터에는 154대에 이르는 광반도체 패키징 관련 시험생산과 지원장비, 시험생산지원 청정시설(1320평), 시험생산라인 System(12개 라인) 등 LED/LD 패키징 시험생산을 위한 각종 장비가 설치돼 있다.

센터 구축으로 LED패키징 전문기업 원반도체와 오이솔루션 등 20여개 관련기업이 이미 광주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추가로 양산설비 증설 등이 이루어지면 260억원에 이르는 연관기업 매출과 23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전망된다.

광주시는 또 센터에 구축된 시설 장비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기업 기술지원, 국내 첨단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 성과 유치, 지역 광산업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관계자는 “광산업의 중요한 축인 광통신 부품(LD)분야 및 발광다이오드(LED)분야의 산업적 기반을 조성, LED밸리 단지 완성에 한걸음 다가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LED 패키징(Light Emitting Diode Packaging)은 발광 다이오드라고도 하는데 교통신호등, 자동차용 램프 등에 많이 사용되며 레이저 다이오드인 LD 패키징(Laser Diode Packaging)은 통신기기, 의료장비 등에서 주로 활용되는 첨단부품소재이다. (광주=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21>